

막막한 귀농... 미리 교육 받고 준비하세요

광주·전남 농기센터·농식품부 등 다양한 지원·교육 프로그램 마련 귀농·귀촌 실태조사... 교육받은 귀농인 소득 증가폭 높게 나타나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귀농을 준비하는 '초보 농부'들에게는 귀농·귀촌 교육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광주시·전남도 등 지자체와 민간 농민단체·농협 등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내기 농부들의 귀농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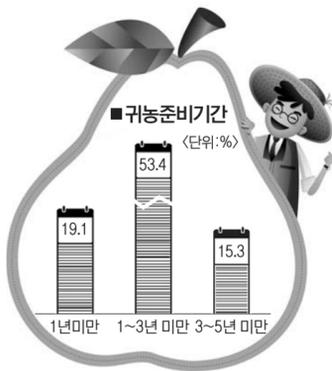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 2507가구를 설문조사한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한 10가구 중 6가구(66.7%)는 온·오프라인, 선도농가 인턴십 등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대상 중 5년차 귀농자의 실태를 분석해 보니 이들의 귀농 첫 해와 비교한 농업소득 증가폭(1523만원)은 교육을 받지 않은 귀농인의 증가폭(685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귀농을 준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 같은 조사에서 귀농을 준비하는 평균 기간은 2년3개월 정도(27.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미만 준비한다는 답변이 53.4%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19.1%), '3~5년 미만'(15.3%), '5년 이상'(12.1%)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에 귀농한 가구원 수는 ▲2015년 3071명 ▲2016년 2999명 ▲2017년 2909명이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농부들을 위한 '이론교육·현장실습' 등을 진행한다. 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강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농촌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이나 만 40세 미만 정장년층을 대상으로 매달 80시간 이상 현장실습교육을 하고 40만~80만원 상당의 연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모집기간 6~7월)과 밭고을 귀농·귀촌 교육(7월), 농산물 마케팅 전략 프로그램(8월) 등 교육과정이 예비 귀농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기술 교육(9월),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10월)도 마련돼 있다. 문의 062-613-5273.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달 '농업경영 기본 실무', '여성 농업인 창업', '농업인 드론방제기반' 6개 과정을 운영한다. 다음 달에는 사흘 과정의 '농식품 유통·마케팅'과 '오픈마켓 농산물 판매' 등을 앞두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청년 농부 미디어 크리에이터 경연대회'를 진행하며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해 농산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061-330-2600.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에서는 전북 정읍, 경기 가평, 충북 청주 등 농업법인이서 정원농장 디자인과 마을여행사 창업, 식품 제조·가공 실습 등 다양한 소재로 교육을 펼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월부터 애플망고, 커피, 바나나 아카데미 클럽을 잇따라 발족해 청년 농업인들의 아열대작목 재배 준비를 돕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함께 '도시가족 주말농부 농촌체험'을 매달 진행하고 있고 은퇴 예정자들이 결성한 '빛찬들 귀농확산 운동본부'를 지난 2월 발족했다.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는 남구 양동동에 약 16㎡(5평)씩 300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희망밭'을 마련해 귀농 실습을 돕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귀농·귀촌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크다"며 "귀농·귀촌인들의 이전 직업경력과 다양한 기술·자격 정보 등을 활용한 지역일자리와 창업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 환경부 장관상 수상 기후변화 적응추진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2019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추진 관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대전상공회의소에서 12일 열린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성과발표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농업종사자에게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자에게는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정책수립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벌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 공사는 기후변화에 대비 적응대책 이행 및 평가를 통한 공사 고유 업무를 평가해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농촌형 제로에너지 구축 사업 등 농어촌에서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바나나 아카데미클럽 발대식. '전남 바나나 아카데미클럽' 발대식이 지난 1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남지역 바나나 재배농가와 재배 희망자, 지자체·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20명이 참여한 이 클럽은 앞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전남 아열대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전남농협 제공>

롯데마트, 슈퍼푸드 강진 햇귀리 할인 행사

26일까지 1.8kg 1봉 8980원

광주지역 롯데마트가 강진에서 난 햇귀리 1봉(1.8kg)을 오는 26일까지 8980원에 판매한다.

귀리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로, 방송 등을 통해 그 효능이 알려

지면서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함량이 높고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기도 하다.

롯데마트는 수입귀리에 비해 식감이 부드러운 강진산 '쌀귀리'를 정상가보다 2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귀리 수입량은 4만5024t으로 2년 전 수입 물량(2만3171t)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미란 롯데마트 권식품팀MD(상품기획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국산 귀리의 상품 규격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수입산이 대부분이었던 귀리 시장에서 국산 귀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美 FOMC 시선 집중... 금리인하 가능성 예상 트럼프 대통령 방한 대북관련주 긍정적 작용 인덱스ETF 등 대형주 저점 분할매수 대응을

글로벌 증시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가 무기한 연기되며 주초 상승 출발했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며 시장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사건 배후로 미국과 사우디는 이란을 지목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18~19일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태도가 이어진 이후 연내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6월 초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 강한 반등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부분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지표에서는 FOMC의 연내 2~3회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어 시장의 과도한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FOMC에서는 내년 한 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했던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동결로 낮춰질 것으로 보이며 FOMC 이후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28~29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의 진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했지만 시일이 임박한 만큼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남북과 대북 가격부담이 크게 완화된 대북 관련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의 방한은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협상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급격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거나 관세부과 완화 등 무역분쟁 타결방향이 모색된다면 한미정상회담은 북한문제에 집중되며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이 불발되고 경색국면이 심화된다면 트럼프대통령은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 안보를 강조하며 압박한다면 수출주 뿐만 아니라 대북주까지 경색될 수 있어 G20 무역협상 결과가 매우 중요하 할 수 있다.

이번주는 FOMC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FOMC에서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킬만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긍정적인 결과에도 G20 정상회담이 남아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FOMC가 향후 중요한 정책변수이기는 하나 단기 관망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증시시대 취약한 수급구조와 반도체가격하락, 그리고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려운 시장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단기적인 대응이 어려운 자세이기는 하나 시장 저점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대북관련주의 단계적 대응과 저수를 활용한 인덱스ETF 및 반도체, 소재, 산업재 등 대형주 저점 분할매수 대응은 가능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거리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욕기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